



## 바이엘코리아(주)

### 제3기 바이엘 환경대사 선발



바이엘코리아(주)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제3기 바이엘 환경대사'를 선발한다.

바이엘은 UNEP(United Nations of Environmental Program ; UN 산하 환경 기구)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BYEE 프로그램이다.

BYEE는 'Bayer Young Environmental Envoy'의 약자로 바이엘 환경 대사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바이엘코리아(주)와 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주관 하에 올해로 3번째 해를 맞이한다.

환경 에세이와 에코 캠프를 통해 선발된 환경대사들은 11월에 열리는 독일 환경 여행에 한국을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바이엘 환경 대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은 아래와 같이 공모주제를 응모하면 된다.

- 참가자격 : 대학(원) 재학중인 남녀학생(25세 이하)
- 원고분량 : 제한 없음

■ 공모주제 :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No Border on Environment)

a. 사막화가 인류에 초래하는 재앙은 무엇인가?

What kind of disaster does desertification cause to the human?

b. 왜 한국이 사막화 방지에 동참하여야 하는가?

Why should Korea join in combating desertification?

c.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막화 방지에는 무엇이 있을까?

What activities can students do to combat desertification?

\*메인 주제 포함해서 a, b, c까지 전부 3가지 주제 아래 작성 가능함.

■ 접수기간 : 2006. 4. 3 ~ 6. 16

■ 접수처 : [www.bayer.co.kr](http://www.bayer.co.kr)  
(접수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문의 : [bayer@bayer.co.kr](mailto:bayer@bayer.co.kr)

## 네오바이오(주)

### '닥터-M 출시 선포 및 사업비전 설명회' 개최

네오바이오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종철)는 지난 4월 13일 서울 팰라스 호텔에서 '닥터-M 출시 선포 및 사업비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유종철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네오바이오(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계산업의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



며, 여러분의 휴대폰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질병 진단 시스템 및 사양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향후 네오바이오(주)는 더욱더 발전적인 모바일 솔루션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출시된 모바일 '닭터-M' 서비스가 모든 양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발전되는 기능에 양계인들의 소망이 담겨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닭터-M서비스의 런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다.

양계 농가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닭터-M'은 원격진료 시스템, 양계 시세, 현장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부가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원격진료 시스템은 닭의 질병(상태)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하고 전문가와 연결되는 Data Base와 디지털 콘텐츠의 복합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우성사료**

**천안연암대 축산 장학금 전달**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4월 4일 천안연암대에 축산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축산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축산계열 김문기 학생을 비롯한 10명에게 총 5,000,000원이 수여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후원할 계획이다.

우성사료는 2005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명에게 7,500,000원을 지급했다.

김성민 상무이사는 인사말에서 "축산의 밑거름이 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과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산·학간 협력체제를 이뤄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더욱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강조했다.

**(주)삼지약품**

**사무실 이전**

(주)삼지약품(대표이사 고영)은 지난 4월 7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다.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5-24 3층
- 전화 : (02)373-3669
- 팩스 : (02)373-3830

CJ Feed

중국에 7번째 사료공장 설립



CJ Feed가 사료사업 글로벌화를 위해 중국시장 진출 4년만인 지난 4월 8일 중국 천진에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번째 공장인 천진 CJ Feed 준공식을 가졌다.

천진 CJ Feed 사료공장이 위치한 천진시 정해개발구는 하북성 전지역과 산시성, 그리고 내몽고 일부의 운송이 용이한 진호고속도로(천진~상해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판매량 확대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지티

협진기계 인수 합병

도계라인 시공사인 (주)지티(대표이사 조종원)는 지난 4월 20일자로 협력업체였던 유업계 설비전문 업체인 협진기계를 인수 합병했다.

이번 인수 합병은 협진기계의 기존 영업권 및 모든 설비를 (주)지티로 합병했으며, 기존 협진기계의 이장길 대표는 (주)지티의 공장장 및 상무를 겸임키로 했다.

(주)지티는 이를 계기로 향후 유업계의 앞선 자동화 기술을 도계쪽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주)코스프

육계 계열화사업 진출

(주)코스프(대표 김인천)가 지난 4월 20일 육계 계열화 사업에 진출, 올해 매출 206억원을 추가로 달성토록 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스프가 신규 진출하는 육계 계열화 사업은 닭고기 생산과 관련된 증계사육, 부화, 육계사육, 도계, 육가공, 유통 등 전 과정을 한 회사가 직접 관리해 품질 좋은 닭고기를 생산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현재 국내 닭고기 생산의 약 70%가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사업이다.

코스프는 이날 육계 계열화 사업 진출을 위해 (주)상원, 농업회사법인 백산(유), (주)광진식품, 영농조합법인 부국, 동진농장과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코스프는 이번 사업 제휴를 통해 연간 4만8천톤에서 6만6천톤 가량의 사료를 타 업체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당 20만수를 직접 사육 판매할 예정이다. 또 연 매출 100억원 이내의 육가공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코스프는 육계 계열화 사업을 통해 올해 매출이 206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당초 발표했던 매출목표를 수정해 전년대비 236% 늘어난 767억원으로 잡았다.

경상이익 역시 736% 신장한 50억원으로 경영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도 3년 이내 매출 1,200억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편 코스프는 이날 1/4분기 경영실적과 관련, 매출액이 71억3천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37억원과 비교해 92.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두산 백두사료

‘백두(102) 데이’ 행사 개최



(주)두산 백두사료(부사장 정진항)는 지난 4월 14~15일 이틀동안 경기도 안성 소재 안성연수원에서 2006년도 제1차 ‘백두(102) 데이’ 행사를 갖고, 102%의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교육과 함께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백두 데이’는 새해가 시작된 후 102번째 되는 날에 백두사료 전직원이 모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2% 더 고객만족을 위한 백두사료 직원들만의 행동 강령 점검 회의 날이다.

이번 ‘백두 데이’에서는 교육과 영업사원별 타겟 거래처 추진실적에 대한 발표와 2% 더 고객만족을 위해 백두사료 직원들이 해야 할 행동강령을 점검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 세일즈판매왕인 최진성씨로부터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점점 치열해지는 축산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도 가졌다.

축산신문사

축산인 등반대회 성황리 개최

축산신문 주최로 열린 2006년도 춘계 축산인 등반대회가 지난 21일 관악산에서 축산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축산인 등반대회는 전날까지만 해도 봄날 같지 않게 쌀쌀했던 날씨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화창하게 축산인들을 반겼다. 등산 길 곳곳에 핀 진달래 등 봄 꽃은 최근 FTA 등 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으로 위축된 축산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이날 축산인 등반대회는 단체와 개인 선수들이 우승을 겨루었는데, 단체 우승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준우승은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가 차지해 트로피와 상품을 받았다.

(주)코미팜

동물용백신 생산기술 이전 계약

(주)코미팜(대표이사 양용진)은 지난달 항주천량수용생물제품 유한공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하는 기술은 동물용 백신 생산 기술로, 닭 살모넬라 생균백신인 9R백과 돼지 호흡기 종합백신인 레스백 등이며 중국내 판매시 총 판매액의 15%를 기술이전료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주천량수용생물제품 유한공사의 생산공장은 대지가 33,333㎡, 건물이 19,800㎡으로 GMP국제 기준에 준하여 신축해 완공된 상태이며, 현재 GMP 승인을 위한 실사 중에 있다.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구제 가능 분쟁조정위, 환경피해 구제기준 공표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축사내 소음이 백화점 정도 수준이면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우를 비롯한 젓소, 돼지, 닭, 사슴 등 가축피해의 경우 60데시벨(dB(A))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60데시벨 정도면 백화점에 갔을 때 느끼는 소음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구제기준이 반드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측은 또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기

준의 경우 사람에 국한돼 제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가축의 경우 피해상황에 따라 그 피해 보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양축 농가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분쟁조정위에 신청할 경우 최소 3개월, 늦어도 9개월 내에 조정위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배상신청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

### ■ 신청안내

- 전화 : (02)2110-6981~99

- 홈페이지 : [www.edc.me.go.kr](http://www.edc.me.go.kr)

##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분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지요. 또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mailto:hj@chicken.or.kr)